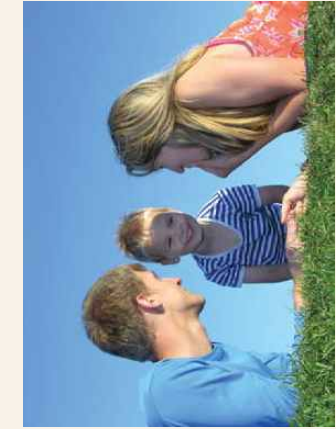


가족학 이론 중 가정사역에 활용할 수 있는 이론으로 가족생활주기 이론(Family Life Cycle Perspectives)을 들 수 있다. 미국의 에블린 두발과 루벤 힐에 의해 개발된 이론으로 가족주도 개인처럼 시간에 따라 발달하고 변화함을 주장하면서 발달단계(stages)에 따른 가족의 과업(tasks)을 논의하고 있다. 가족은 가족 형성기를 시작으로 부모 전이기,



# 가정사역에서 가족생활주기 이론의 활용

## 6 김성은(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인간발달 및 가족학과 교수)

가족은 가족 형성기를 시작으로 부모 전이기, 학령 자녀기, 자녀 청소년기 등의 발달단계를 거치고, 단계마다 현재와 미래의 최적의 발달을 위해서 성취하여야 하는 과업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가족발달적인 관점에서 가족을 이해하는 것은 가족이 미래에 겪을 수 있는 역기능적인 요소를 예방하게 도와주고 현재와 미래의 가족의 특성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부모 전이기

자녀 출산으로 부모생활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기로 새로운 가족체계를 부부가 수용하고 부모 역할을 시작하는 단계다. 자녀 출산은 남편과 아내의 자아정체성에 큰 변화를 주고 가족의 삶에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주지만, 자녀양육이라는 엄청난 과제 앞에서 부부관

계의 양상이 크게 변화하게 된다. 연구들에 따르면 이 시기의 부부 사이에는 긍정적인 상호작용 - 애정의 표현, 긍정적인 의사소통, 부부만을 위한 시간 등 - 이 급격히 줄어들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증가한다고 한다. 남편은 집안에서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참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이지만, 여성은 돌봄노동에 대한 부담과 시간과 에너지를 남성보다 훨씬 많이 사용하고 양육의 어려움으로 결혼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학자들은 부부가 이 시기를 지혜롭게 지나가는데 남편의 역할을 중요하게 논의하는데, 남편이 아내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높이며 가사 및 돌봄노동을 용성성 있게 배분할 때 아내의 우울감이나 정신적인 어려움이 낮아지고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어떻게 하면 부부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높이고 남편이 부부 관계에 더 이바지할 수 있는가를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자녀 학령기

자녀가 신체적, 지적, 언어적, 심리 사회적 발달이 급격히 일어나는 시기다. 유치원 및 학교교육이 중요하게 대두하는 시기다. 자녀는 언어의 발달과 시고 능력의 향상으로 가족의 의사결정 - 어디서 무슨 음식을 먹을지, 주말에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지 등 - 에 서 자신의 목소리를 점점 높게 내게 되고, 자신의 선택이 가족결정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게 된다. 또한, 우 리나라처럼 엄마가 밖에서 일하더라도 주된 양육의 책 임자라면 자녀에 관한 선택 및 결정에서 엄마의 역할과 비중이 증가하고 자녀는 엄마와 자연스럽게 친밀하고 동맹관계가 형성됨을 연구들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녀와의 대화에서 서서히 소외되고, 아버지 어머니 자녀 간에 미묘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부모는 자신의 뜻을 굳히기 위해 자녀를 자기편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고, 자녀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머니나 아버지를 끌어들이

다. 자녀의 학교적응에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은 재 고의 여지가 없는데, 연구들은 부모와의 신뢰에 기반 을 둔 애착 관계의 형성 및 유지, 부모의 따뜻함과 통제 가 균형 있게 사용되는 부모 노력, 그리고 가족 내의 직 절한 의사소통은 자녀가 학교적응을 잘 이뤄지게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 자녀 청소년기

부모가 자녀가 청소년이 되면서 겪는 변화에 잘 대응 하고 이해하며 자녀가 성인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 중요한 발달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 기의 청소년 자녀는 감정적인 기복이 심하고, 혼자 있 기를 좋아하며, 부모보다는 친구들이 중요하고 독립적 인 개체로서 사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생기는 시기 이다. 이 진에는 자녀가 순종적이고 부모를 거스르는 경우가 없었지만,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자녀는 부모 가 서서히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기 시작하고, 많 은 자녀가 부모와 거리를 두고 싶어한다. 이럴 때 부모 는 자녀에게 일반적으로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방식을 벗어나 자녀를 격려하고 비판을 피하며 자녀를 존중하 는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자녀의 정체감 형성에 중요 하다. 특히, 가족들 간의 경계나 규칙에서 너무 뻘뻘하 기보다는 융통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서구와 한국의 사회과학 연구들은 자녀양육에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많이 논의하고 있는데, 2011 년 여성가족부의 자녀의 발달과 아버지 역할과의 상 관관계에 관한 연구가 그 중 하나이다. 이 연구에 따 르면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와 학생 중 자신의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한 학생들은 긍정적인 내적 발달 - 자아존중감 - 에서 높은 수준을 보일 가능 성이 높고 부정적인 내적 발달 - 우울증 - 에서 낮은 수 준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한 자녀는 긍정적인 외 적 발달 - 학교생활에서의 적응 - 에서 높은 수준을 보 일 가능성이 높고, 부정적인 외적 발달 - 문제행동 - 에 서 낮은 수준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러한 연

### 허베스틀은 누구인가?

기독교계의 외국 저자 중에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들이 있다. 존 스톱트, 토저 등과 같은 이름이 그들이다. 이들은 복음적이며 보수적이고, 경건한 신앙인으로 목사이며 신학자로서 우리에게 고전적인 저자로 남아있다. 글의 문체와 영성의 분위기를 좀 더 대중화하면 역시 익숙한 외국 저자들의 목록이 생성된다. 찰스 스윈돌, 유진 피터슨, 리처드 포스터 등과 같은 이름이 또한 그들이다.

이들은 한국 독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기독교계 인기 저술가로 아마도 마니아 그룹이나 팔로어도 대단해 보인다. 고정독자층을 형성한 저자들이다. 그들의 책은 한국 독자들에게 신화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거의 거부감 없이 읽힌다. 여기에 폴 허베스틀(T. Horvostol)을 첨가하면 어떤 반응이 올까? 그 이름은 우리에게 생경하고 생소하다. 그런데 전혀 낯설지가 않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위에 소개해 기증 저술가들과 비교해서 문체와 분위기가 참 비슷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책 곳곳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저술가들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작용한다. 허베스틀은 스외겔란드에서 선교사로 헌신했고, 목사로 섬겼으며 그리하여 목회 현장에 서 벌어지는 신앙인들의 위선적 페르소나에 대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뇌하였다.

### 현대 신앙인의 페르소나에 말 걸다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비판하려 하지 않는다. 그 비판이 정말 할 때에도 비판하려면 왓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깔려져서 용서하지 못하므로? 자책감이 먼저 들 때가 잦다. 이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은 주로 이런 성경 구절이다. “비판을 받지 아 니하러거든 비판하지 말라”(마 7:1).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나”(마 7:3). 그런데 이런 심적 장애물을 부심비리고 비판을 감행할 때 정당화할 수 있는 이름이 있다. 비판을 정당화하는 최상의 조 건은 바로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제이다! 라는 딱지가 붙으면 어떤 비판이라도 할 수 있는 면죄부, 용기를 준다. 왜 그렇까. 아마도 신약 성경에 100회 이상 등장하는 용어이기도 하며, 중 중 특정한 색깔론으로 대변되기 때문이다. “...너희 의가 서기 판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 리라”(마 3:7).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

계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적용이 필요하다. 이 시기 부 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강한 정서적 지 지가 필요하다. 중년기로의 전이는 강한 정서적 변화를 동반하고 변화가 불안정할 때는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또 부부가 상대방의 지지가 부족할 때 고립감이 나 거릴감을 강하게 받을 수도 있기에 부부간의 정서적 지지는 이 시기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 시기에는 가 사와 집안일에 대한 규칙들을 새로이 정립하는 것이 요 구되는데 이럴 때 부부간의 많은 대화와 소통은 필수적 이고 이를 통해 부부관계가 성장할 수 있다.

### 노년기 가족

본인과 배우자의 노령화에 적응하고 배우자의 죽음에 적응하는 시기로서 자녀의 독립과 의존을 균형 있게 조 절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특히, 합리적인 경제적인 대책의 마련, 정신적 신체적 건강의 유지, 적절한 거주환경의 선택, 부부관계의 개선, 죽음의 수용, 가족 친지와의 유 대감 등을 유지하는 것을 이 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으 로 가족학자들은 보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처럼 남 성의 은퇴연령이 빠른 사회에서는 남성이 은퇴 이후 자 원봉사 등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생활에 부분 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자신의 자아정체감에도 좋고 성 공적인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 맺는 말

가족주기 이론이 사회과학에 기초를 두지만, 부부가 현 재와 미래에 경험하는 인생과 가족의 부정적인 사건들 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가족 구성 원을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 이론이 잘 사용될 때 가정사회의 전문성이 더 깊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구결과는 자녀가 청소년기가 되어서 부모로부터 분리 를 시도하고 독립적인 개체로 크고 싶어하는 시기임에 도 아버지가 자녀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보여주면서 이 시기에 부모 자녀 관계가 힘들더라 도 아버지가 지속해서 자녀에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함 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이 시기에는 부부가 자녀의 교육에 더 집중하면서 부부관계를 가꾸고 기르는데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부부의 자녀 교육에의 집중은 당장은 좋 아 보이지만 나중에 자녀가 떠나고 부부가 나이 들어 살아가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관계 중 심적으로 살아온 남성이 일 중심적으로 살아온 남성에 비해 노년기에 더 좋은 부부관계를 갖고 성공적인 노화 를 경험한다는 연구결과를 비추어 보았을 때 자녀의 교 육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부부가 지속해서 부부만의 시 간을 갖고 대화하고 관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 요하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가족교육은 청소년 자녀에 대한 이해와 이들과의 소통뿐 아니라 이 시기에 부부관 계를 든든하게 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

### 자녀 독립기

자녀가 20세가 넘으면서 사회로 진출하고 독립적인 개 체로 되는 시기다. 자녀의 대학입학 및 졸업, 취업, 그 리고 결혼을 하는 시기로 이들의 인생에서 큰 도전과 변화를 겪는다. 또한, 부모님의 짐을 서서히 떠나게 된 다. 부모는 중장년기를 지나면서 사회생활에서 공헌이 극대화되고 책임이 크게 부과되는 시기이며 이와 함께 서서히 노화로 말미암은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변화 등을 경험하게 된다.

가족발달과정으로는 부부중심의 거주환경 설정, 건강 대책의 마련, 장대를 위한 경제적 계획, 부부간 상호보 충적 역할 발전, 부부간 상호작용 증대, 지역사회 활동 참여 및 인생관 재확립 등이 있다. 무엇보다 이 시기는 자녀가 서서히 떠나면서 부모가 이전과는 다른 부부관




## 불편한 진실, 내 안의 바리새인

틀 허베스틀 지음 | 이경미 역 옮김 | 2012.1월, 홍성사 펴냄

### ◎ 추태화 (인양대 기독교문화학과 교수)

이 책에서 허베스틀 목사는 설교가라기 보다 치유자이다. 그의 저술은 위선과 착각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치며 치유한다. 전통, 율타미, 규범으로 바뀐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구원이 임한다. 모든 “바리새적” 가면을 벗어버리고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김성연**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브랜디워인 캠퍼스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Brandywine)의 인간발달 및 가족학(Behavioral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가족공동체를 회복하고 새롭게 세우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가족학 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고, 부부관계, 남성과 아버지, 다문화 가족, 질적인구양법론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